월악산-彌勒石佛의얼굴

수안보온천 동쪽 중원군 상모면 미륵리에있는옛미륵사터와미륵석불자리는많은 풍수학자들이우리나라대길지중하나로일컫는곳이다. 이곳은크게 볼 때 월악산과 주흘산의 중간 계곡에 자리한북향구릉으로높은산들로둘러싸인 요새지다. 또한 이 미륵리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고구려, 백제, 신라등세나라가 쟁패하던군사적요충지로큰비중을차지했던곳으로전해져오고있다. 이런사연으로 온달 장군의 일화 등이 전래돼 오는 곳이기도하다.

이미륵사와미륵석불이건립된정확한 연대는밝혀지지않고있으나신라말이나 고려 초로 보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이 절은고려때몽고전란으로소실되어주춧돌만즐비하게남아있고현재에는10.6m 높이의 미륵석불(보물 제96호), 5층 석탑(보물제95호), 석등(지방문화재제19호)만이 외로이 서있어 옛날 대가람의 면모를 짐작케하고있다.

먼저현존하는미륵석불상에대하여살펴보기로 하자. 이 불상은 화강암을 다듬어 6층으로 쌓아 올렸으며 정상부의삿갓부위인6단층과기단부터4단층까지의몸통부위는천년동안의비바람으로퍼렇게 이끼가끼어우중충한모습이다. 그러나5단층에해당하는얼굴과목부위만은분을 바른 것처럼 맑고 깨끗해 이곳을 심방한 사람들에게신비스러운느낌을갖게한다. 이 불상의 얼굴 부위만이 깨끗한 사유를 규명하고자 일부 학자들의연구가있었다

는얘기는들었으나해명되었다는말은아직듣지못했다.

이미륵사와미륵석불을건립한사람에 대하여는고려태조왕건의조부인작제건이라는설과신라국마지막왕인경순왕의 아들인마의태자라는설등으로분분하다. 일부학자들은이미륵석불북쪽의월악산 기슭에 있는 덕주사와 이 절 경내에 있는 암각마애불을 마의태자의 누이인 덕주공주가세운사실과미륵석불과마애불이서로 마주 바라보는 대칭 구도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보고 마의태자 건립 설에 무게를 두는것같다.

마의태자건립설과관련되는전설에의하면 태자 일행이 망국의 설움을 안고 경주를떠나금강산으로향하던중조령에서 숙영을하게되었다. 이때관음보살이현몽하여" 이 고개를 넘으면 서천에 이르는 큰터가있는데이곳에절을짓고북두칠성의파란별빛이멎는자리에미륵불상을 건립하라"고계시했다고한다.

이 미륵불상 터는 소백산맥이 연화봉, 도솔봉, 대미산, 포암산을거쳐 주흘산과 조령산으로 분지하여 뻗어 가는 산맥 중 주흘산을세우기 전산가지가역회전하면 서떨어져내린북쪽맥끝에자리해있다.

따라서이미륵석불의주산은주흘산을 세우기 전의 이름 없는 봉우리이고 뒤를 받쳐주는 요산은 주흘산, 조산은 월악산, 청룡은 신선봉, 백호는 포암산으로 이들 네 산이 동서남북 방위에 우뚝 우뚝 늘어서서 큰 국을 이루었고 미륵사 터는 함지박속같이깊은곳에자리해있다.

이와 같은 산들의 겉모양만을 보고 일부 학자들은 미륵사 터를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대길지로평가하는사례가있는것 같으나공중에기가모아지는화기명당에 자리한미륵석불을빼놓고는큰길지가없다는것이필자의견해이다.

필자의 견해로 이 미륵석불의 얼굴은 화기명당의핵자리에위치하고있으며이 때문에천년의풍상속에서도희고깨끗한 얼굴모습을그대로간직하고있어외경심을 자아내게 한다. 따라서 북두칠성의 파란 별빛이 멎는 자리에 석불을 세웠다는 전설의 신비도 이런 맥락에서 해명된다고 하겠다.

서광석
건설원가협회회장